

# 50+세대 전주 시민, '깜장 산타' 변신

### 전주연탄은행에 348만원 기부·독거노인 3가구에 연탄 배달 봉사 펼쳐

전주지역 50+세대들이 올해 에너지 소비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산타로 변신했다.

50+세대 전주 시민 50여 명이 사회 공헌활동으로 독거노인 3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연탄 봉사활동을 지난 3일 펼쳤다.

이날 연탄 전달과 함께 총 348만 7,246원을 전주연탄은행에 기부했고, 50+음악 커뮤니티인 옹달샘이 준비한 연주에 맞춰 캐럴 노래도 선물했다.

50+세대는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제16회 전주평생학습관 마당'에서 퇴실할 장터를 열었다.

이들은 퇴실할 장터를 통해 각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을 기증받고, 기증받은 물품을 필요한 시민들에게 되팔아 10만6,000원의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권인숙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지난해부터 50+세대들의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며 "50+세대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더 확장돼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50+세대 전주 시민 50여 명이 사회 공헌활동으로 독거노인 3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연탄 봉사활동을 지난 3일 펼쳤다. /최아영 기자

## 홍승완 작가 초청 '내 인생의 첫 글쓰기'

### 전주완산도서관, 시민 1인 1책 출판창작 프로그램 글쓰기 특강 운영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글쓰기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첫 글쓰기' 주제로 글쓰기 특강을 지난 3일 운영했다.

전주시민들에게 책 쓰는 방법과 출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강에는 글쓰기 전문 강이자 콘텐츠랩 심재(心齋) 대표인 홍승완 작가가 초청돼 총 3강에 걸쳐 진행했다.

홍 작가는 1강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시작으로 '2강-어떤 전략을 세울까, 3강-어떻게 쓸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제시하고, 책 집필과 출판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또 출판사와 편집자를 사로잡는 출간기획서 쓰는 법, 투고 원고를 보낼 출판사 메일 주소 100개 등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전수한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특강을 통해 글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책 쓰는 방법과 출판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출판창작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주 시민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글쓰기 특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도서관 종합자료실(063-230-18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전용 택시' 사업자 모집

### 9일까지 방문 접수... 20명 모집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제공할 2023년 한 해 '교통약자 전용 택시(임차 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전주시 개인택시 사업자로, 만 65세 미만으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내 교통약자지원부(이지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설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교통약자 전용 택시는 시각장애인이나 신장 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교통약자 특장차량,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전용 택시로 이용 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교통약자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2자녀 가정도 다둥이카드 혜택 누리요"

### 전주시, 전복은행서 신청... 영화관·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다자녀 감면서비스 제공

전주시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 가구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전주시 주민등록 상 2자녀 이상 가정(1명 이상이 만18세 이하)은 전복은행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다자녀 감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4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15일 이전 발급된 3자녀 이상 기존 다자녀 우대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둥이카드도 교체 발급받아야 내년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둥이카드 발급은 자녀가 2명 이상 이면서 이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이 전복은행 각 지점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세대당 카드발급 수는 1개로 제한되며, 이용시 전국 영화관 건당 3,000원 할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자연생태관·경기전 입장료 무료, 동물원 입장료 30% 감면, 3자녀 이상의 경우, 자연생태관·경기전·동물원 입장료 무료, 자녀별로 체육시설 이용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 항목별 할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만큼, 2자녀 이상 가정에서 전복은행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다자녀기준 확대를 통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경찰청, 민주노총 군산 집회 불법행위 대한 무관용 대응방침 세우

전북경찰청은 민주노총 전북노동자대회 집회 관련(6일 군산 개최)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집회는 전북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등 500여 명이 오후 2시부터 군산 롯데마트에서부터 군산 시청까지 약 2km 도로행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및 교통경찰 등 대응경력을 최대한 배치해 도로행진시 도로를 점거하거나 고의적인 교통방해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대응 방침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달 11월 24일부터 전국적 집단운송거부를 시작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을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완산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오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023년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조사 계획을 5일 알렸다.

완산구 토지특성조사 대상 필지수는 약 68,000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접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산구청(063-220-5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